

# 조선대 하키 적수가 없네... 협회장기 전국대회 4연패

### 제주국제대 7-4로 꺾고 우승 춘계대회 등 올해만 두차례 정상 17일 중별선수권서 3관왕 노려

조선대학교 하키팀이 '제3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 하키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8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하키팀은 강원 동해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3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 하키대회' 남대부에서 제주국제대를 7-4로 꺾고 우승했다.

조선대는 '2020 KBS배 전국춘계대회' 우승의 여세를 몰아 올해에만 두차례 정상을 밟았고, '협회장기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조선대는 전반전 제주국제대의 역습으로 찬스를 허용하며 1-2로 끌려가며 고전했으나, 후반 사이드 돌파를 통한 공격으로 골문을 잇따라 열었다.

신입생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주니어 국가대표

정준성이 헤트트리로 우승을 견인했다. 김현우(3년)·황규동·이정훈·박효민(이상 1년)도 각각 1골씩을 넣었다.

조선대 안용덕 부장교수(체육학과)가 감독상, 김종이 감독이 지도자상을 받았다. 천민규(4년)는 최우수선수상, 정준성(1년)은 득점상 수상자가 됐다.

조선대 하키는 올 시즌 첫 전국대회였던 '2020 KBS배 전국춘계대회'에서도 대회 3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조선대는 여세를 몰아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중별선수권대회에서도 3관왕을 노린다.

조선대 김종이 감독은 "코로나19로 사태 때문에 훈련에 제약이 많았는데, 우려와 달리 선수들이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좋은 성적까지 거두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제3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2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조선대학교 하키팀이 '제3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 우승을 기쁘고 있다. (조선대 제공)

## 전남개발공사 팀 창단·체육진흥공단 펜싱팀 연고지 이전 추진

### 전남도체육회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동계종목 바이애슬론팀 창단도 공모

전남도체육회가 전남개발공사 소속 팀 창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팀 연고지 이전을 추진한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체육회는 체육 진흥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 체육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 팀 창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팀 연고지 이전이 역점사업이다. 동계 종목인 바이애슬론팀 창단도 공모하고 있다.

도체육회는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체육인들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전남체육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이다. 현재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및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추진에도 적극 참여한다.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다지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도체육회는 올 상반기 국비공모사업 8개에 선정돼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했다. 대학생 명예기자를 선발해 공식 SNS를 통해 다양한 전남체육 콘텐츠를 보급했다.

김재무 도체육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문체육 선수, 생활체육 동호인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체육인 모두가 한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이 최근 강원도 양양 사이클대회에 참가한 전남대표 선수 등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남체육을 한층 내실있게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나달도 불참... '빅3' 없는 US오픈 테니스 되나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사진)이 올해 US오픈에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방송 BBC 인터넷판은 나달이 US오픈 직후에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오픈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8일 보도했다.

US오픈은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US오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메이저 대회다.

그런데 나달은 US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 다음날인 9월 14일 개막하는 마드리드오픈에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드리드오픈 토너먼트 디렉터이자 나달과 오랫동안 데이비스컵에서 스페인 대표로 호흡을 맞춰 온 펠리시아노 로페스가 트위터를 통해 "라파(나달의 애칭)의 마드리드오픈 출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나달은 이 트윗에 "로페스, 9월에 마드리드에서 보자"고 댓글을 달았다.

나달이 마드리드오픈에 나선다면 두 대회 일정을 놓고 볼 때 US오픈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나달은 지난날 AP통신 등 주요 외신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뉴욕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US오픈 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나달은 지난해 US오픈에서 개인 통산 19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일궜다. 이 부문 최고 기록인 로저 페더러(4위)의 20회 우승까지 1승만 남겨두고 있다.

나달이 US오픈에 나서지 않으면 남자테니스 '빅3'의 출전이 모두 불발될 것으로 보여 대회 흥행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가 무릎 부상으로 이미 2020시즌을 마감한 가운데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US오픈 출전이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 정동진 광주시검도회 부회장 '8단 대회' 준우승

### 결승서 접전 끝 1-2 분패

정동진(56) 광주시검도회 부회장(광주서석중교사·사진)이 '8단 검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다.

8일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최근 충북 음성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8단 검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땀다.

정 부회장은 서남철(서울)을 머리치기 한판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정 부회장은 결승전에서 김정국(대구)을 허리치기로 제압, 선취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접전 끝에 머리와 손목을 잇따라 허용해 1-2 역전패했다.

이 대회는 전국에서 8단을 보유한 30여 명의 검사들이 출전, 기량을 겨뤘다.

정 부회장은 제6회 대회에서 우승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에 이평형 전 광주시 국장 선임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에 이평형(사진) 전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선임됐다.

이 사무처장은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비서실장, 안전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복지건강국장 등 보직을 거쳤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체육행정을 도맡으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썼고, 2015광주하계 U대회 개최의 초석을 다졌다고 시체육회는 전했다.

시체육회는 이 처장의 부임으로 현재 가장 큰 현안인 법정 법인화 전환 등 지방체육회 선진화를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평형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전체가 힘든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민선 체육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8월 LPGA 브리티시·스코틀랜드 오픈 무관중 개최

8월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자프로골프 대회가 무관중으로 개최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레이디스 스코틀랜드오픈이 8월 13일부터 영국 스코틀랜드의 노스 베리크에서 무관중 경기로 열린다"고 발표했다.

또 영국 R&A도 8월 20일 개막하는 여자 브리티시오픈을 무관중으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여자 브리티시오픈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우스에셔의 로열 트룬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이 두 대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개최가 불투명했다.

특히 두 대회 모두 LPGA 투어가 공동 주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영국 출·입국과 그에 따른 자가 격리 기간 등이 변수로 지적됐다.

하지만 영국이 최근 일부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 코치 등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

고 발표하면서 스코틀랜드와 브리티시 여자오픈의 개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자 브리티시오픈은 올해 열리는 첫 메이저 대회다.

4월로 예정됐던 ANA 인스퍼레이션이 9월로 미뤄졌고 6월 US여자오픈은 12월로 연기됐다. 또 역시 6월 말에 개막하려던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은 10월로 개최 시기가 변경됐다. 8월 에비앙 챔피언십은 취소됐다.

LPGA 투어는 2월 호주여자오픈을 끝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으며 31일 개막하는 드라이브 챔피언십으로 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8월 첫 주 마린 클래식까지 미국에서 2개 대회를 치르고, 이후 스코틀랜드오픈과 브리티시오픈을 영국에서 진행하며 8월 말부터 다시 미국에서 10월 초까지 6개 대회가 이어진다.

남자 브리티시오픈은 7월 16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이미 취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 2관 #살아있다
- 3관 #살아있다, 원 데이, 위대한 쇼맨
- 4관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 5관 그레텔과 헨젤
- 6관 #살아있다,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다크 나이트 라이즈, 인생 후르츠
- 7관 다시 태어나도 우리, 바다가 사랑한 얼굴들, 밤새, 시대유감, 삼풍, 우리들
- 9관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담뱃피
- 7관 씨네마클 #살아있다, 결백
- 8관 씨네마클 소리꾼, 침입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주원의 방랑예찬**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4  
2020. 7. 22.(수)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람(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창작발레 오월바람**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동화 음악회**

GAC기획공연 - FOCUS V  
동화음악회-책으로 풍을 읽는 돼지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